

COVID19와 K 방역

2020.5.7.
김병수 (성공회대/건강과대안)

현재까지 방역 성공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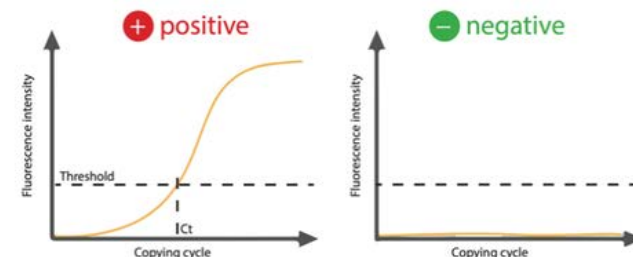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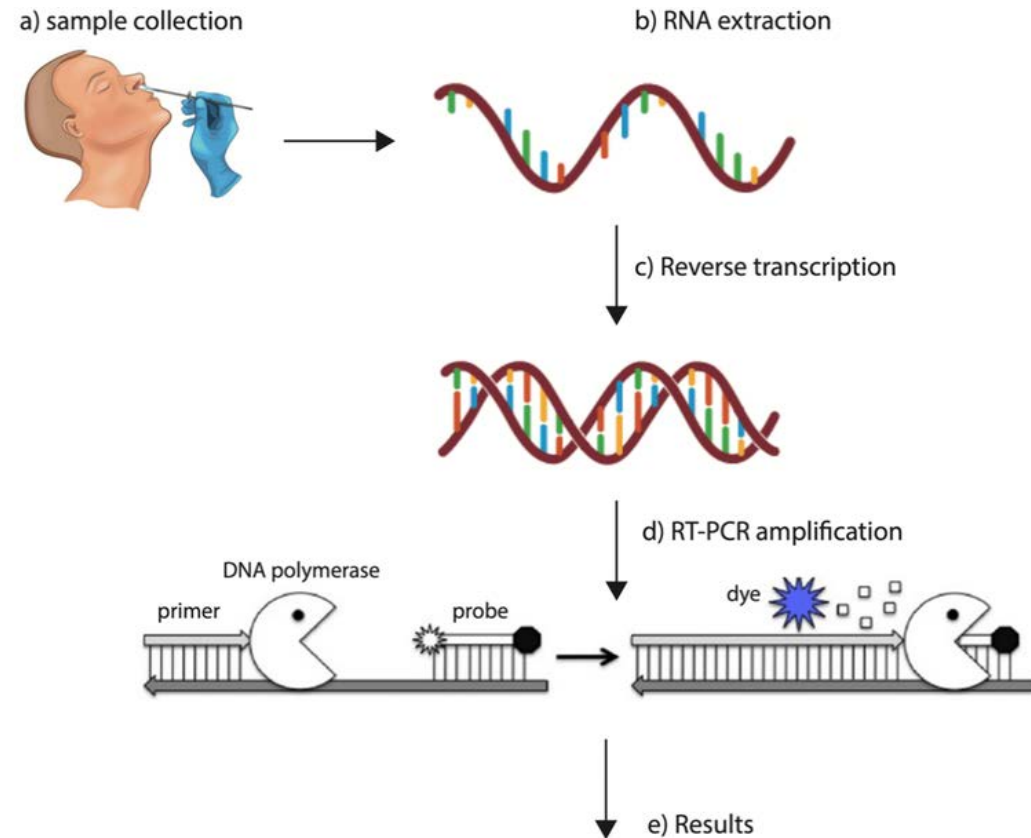
1. 광범위한 진단 검사

채취부터 보고까지 약 6시간 (RT-PCR) , 하루 2만7천건 가능

2. 감시 인프라와 감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

10분 만에 동선 추적

→ 'K-방역'의 작동 방식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시스템들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



○ 진단

RT PCR 검사

-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RT PCR를 통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음. 이미 65만건을 진행했고, 증상이 있거나 원하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음. (95개소)
- 유행 초기부터 코로나 19에 대한 RT PCR 조건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발 빠르게 준비하지 못했음.
- 기술적인 측면 보다는 '정책적'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함, 기술력이 있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정부와 바이오 업계의 소통이 큰 역할을 했음. (시약의 일부, 장비들은 대부분 수입)
- 수술이나 치료를 위한 입원 전에 코로나 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음. 비용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음.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원가를 파악해 적절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.

항체 검사



- 최근 코로나 19에 항체 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1) RT PCR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서 부정확한 키트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.
- 2) 항체 연구의 필요성
- 3) 전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진행하여 무증상 감염자를 찾겠다고 하지만 일부 표본을 대상(대구 경북 지역,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항체검사 추가)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임. 치명률을 희석하는 역할?
- 4) k-bio 육성 분위기를 활용 일부 업체들의 항체 간이 진단 키트 사용 요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 (현재는 수출만 가능)
- 항체 형성 시기, 개인별 항체의 양(방어력?), 지속 기간에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충분.
- 현 시점에서 K-bio 육성 차원에서 벤처기업들의 간이 항체 키트 사용은 방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. 특히 우리나라 처럼 손쉽게 RT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간이 키트 도입은 불필요함.
- ex) immunity passport ? - 항체 존재가 면역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
- 다만, 정부가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 항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필요함.

○ K-방역 협력과 연대 or 감시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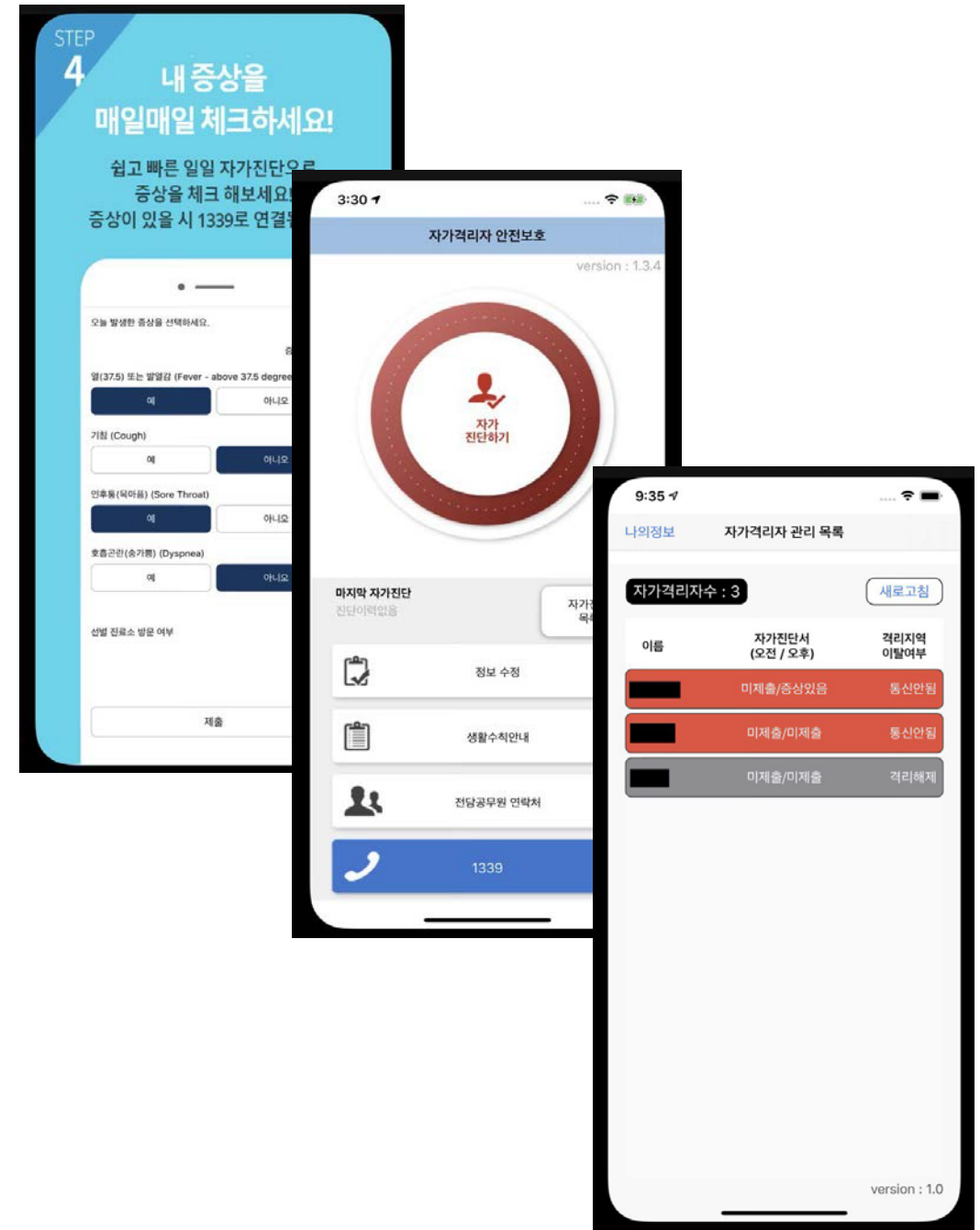
동선 파악

- 28개 관련 기관(경찰청, 여신금융협회, 3개 통신사, 22개 신용카드사 등)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10분 이내에 확진자의 동선파악 (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활용)
- 동선 공개의 목적은 접촉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인지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임.
-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공개 기준으로 업체 피해,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논란
- 지나친 동선 공개로 근거 없는 비난과 추측, 혐오 발언 등이 양산 (주민 신고?)
 - 1) 동선 공개의 목적 명확히 설명
 - 2) 개인/집단 공개 최소화
 - 3)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
 - 4) 동선 공개 주체 일원화 등이 필요

전자 팔찌 (안심 밴드)

- 자가 격리 앱과 법적 처벌에 추가해 전자팔찌를 도입
- 전자 팔찌는 신체의 자유,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
- 위치정보는 그 자체로도 민감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특정인의 패턴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.
- 법적 기반이 없어 동의를 받고 있지만 자발적 동의가 어려운 구조.
- 필요성도 명확하지 않음. 4월 4일 기준 3만 7,248명의 자가 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 이탈률 0.36%

-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빈약한 상황에서 전자팔찌 도입은 격리 대상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



- K-방역으로 인해 감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게 낮아졌음
- 코로나 19극복을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음.

→ 이런 감시 체계가 일상적 감시 시스템으로 유지 확장돼서는 안됨
'유사한 시스템의 상업적 활용'도 경계해야함.

